

교회 구성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한 다문화 시대 기독교교육의 과제에 대한 고찰*

정환희**

요약

성서는 이미 오랫동안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독교인의 고백은 그의 창의성을 토대로 나타나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다양성에 대한 억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자 성서에서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인간의 오만함Titanism의 표현이다. 인간의 오만함으로 인한 배제와 차별은 부정의이다. 하나님은 이 길에서 돌아서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성서를 통해 가르치고 있다.

필자는 이주 외국인 중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바라보는 한국 교회 구성원들의 관점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강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2) 개종이 문화 접변 현상에 의해

* 본 논문은 필자의 2008학년도 한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다문화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에서, 국제이해교육학회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목과 내용을 수정, 보완한 글임.

** 한신대학교 석사, everyday5015@hanmail.net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3)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개종 강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4) 여성에 대해 타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 결과를 통하여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육에 의해 긍정적인 미래를 추구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성서, 다양성, 떠돌이, 자기 정체성, 국제결혼 이주여성

I. 서론

한국 사회가 다종교 상황을 인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동안 종교가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최준식은 “한국처럼 세계를 대표하는 종교들이 들어와 대등한 세로 각축을 벌이는 나라가 세계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은 종교 간 대화를 하기 위해 매우 좋은 실험장이자 학습장”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종교 간 분쟁이 없는 이유는 기독교만큼 배타성을 지닌 종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한겨레신문, 2005년 10월 25일자).

그러나 기독교의 배타성은 성서 정신에 위배된 왜곡된 현실에서 기인한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세상과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창조에는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성과 상생정신이 깃들어 있으며, 히브리 민족이 소중하게 여긴 십계명과 모세 오경에는 끊임없이 생명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 나타나고 있다. 그 대상은 히브리 민족을 넘어 떠돌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신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에 의해 그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재해석되고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기독교의 원정신은 다른 것에 대한 배타성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한국 사회 속에서 잠재적 갈등의 직·간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할 때, 기독교 정신에서의 이론과 실천의 분명한 괴리감을 재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특수한 근·현대사 속에서 나타난 기독교는 많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민족 구원의 종교로 인식하고,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여길도록 하였다. 당시 미묘한 국제관계 속에서 서구 세계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 조선의 독립과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발전에 기여하고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서광일, 1987: 168).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그대로 이어져 2005년 현재 실제 4천 7백만 인구 중 53% 정도에 속하는 2천 4백만 명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기독교를 개신교 34%, 천주교 21%로 볼 때, 불교 43%와 함께 상당히 큰 교세를 자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통계청, 2005).

설동훈(2000)이 조사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시민단체 90개 중 기독교 단체는 79개로 전체의 8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한글교육과 종교교육(전도, 포교 사업), 컴퓨터 교육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 단체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정주의 문제보다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회구조적 거대 담론 안에서의 폭력과 차별에 대한 저항의 차원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개종 또는 전도하여 교세를 확장시키는 데 최종적인 목표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986년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시작한 김해성은 외국인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문제와 함께 “의식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다.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서 그가 본 것은 인간성의 상실과 허세였다. 세계 산업 구조와 질서 재편의 과정에 떠밀려 들어가면서 인간성 파괴가 시작되었기에, 그것을 간과하고는 진정한 평화적 공존의 질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문화적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그 대상의 범위를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교회 구성원으로 보았다. 특히 교회 구성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다문화적 기독교교육의 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는데, 아직은 소수자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보다는 다수자에 해당하는 교회 구성원의 다문화 시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학과 기독교교육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기독교 정신에 대하여 돌아보고, 한국 사회에 정주를 목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회 구성원들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해 조사해 봄으로써 기독교교육이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의 평화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보고자 한다.

II. 기독교교육의 다문화 교육적 성격

1. 다문화 교육의 신학적 근거

1) 창조주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신학

마틴 팔머(Martin Palmer, 1991)는 기독교가 다양성 문제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 이후라고 본다. 그것은 기독교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집시, 사회주의자에 대한 혐오에 의한 대량 살상에 동조하고 적

극적으로 환영하였던 것에 대한 회의와 반성에서 출발한다. 기독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창1:1)”는 신앙고백에서 기본 정신이 시작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의 부모이며, 따라서 그의 자녀인 창조물은 모든 생명의 거룩함 앞에서¹ 자유롭고 평등하게 생명력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자 그의 기쁨이 되었고, 기독교인은 그 뜻에 따라 그 기쁨에 모두가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일꾼이다. 성서는 고대에 발생하였던 이집트 노예 해방 사건을 토대로 이스라엘 율법의 전신인 십계명을 선포하였고, 이방인과 약자 보호에 관한 법을 지키도록 하였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하나님과 이방신 중 섬길 신을 선택할 기회를 다시 준다.² 해방자 창조주 하나님이나, 아니면 왕과 권력과 폭력 밑의 노예로 회귀하겠느냐의 선택이다. 또한 이것이 기독교의 본래적 유일신 사상이자, 우상 타파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러나 리차드 니부어(Richard Niebuhr)는 “기독교 종교사는 유일신 신앙의 왜곡의 역사요, 배반의 역사”라고 지적하면서 기독교의 신관인 유일신이 일신론³으로 왜곡되어온 사실을 지적한다.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열정적인 비전문가 그룹에게 기독교교육을 위탁해 왔다(은준관, 1999). 교육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여 사람들을 교회로 묶

1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레위기 11장 45절)

2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를 섬길 것이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16절)

3 일신론이란 하나의 신(神) 아래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 하나의 문명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적 결속을 도모하는 신관(神觀)이다.

어두는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들에게 교회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록 방치하는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이러한 과거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서구의 제국주의적 선교방식은 개종을 통한 개화 또는 문명화였고, 이것은 피선교지의 문명을 억압하고 훼손하고 서구 문명을 이식하는 작업으로 진행되어 온 바 있다(박근원, 1986).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⁴는 1952년 독일 빌링겐Willingen에서 열린 5차 국제선교협의회The Faith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에서 논의되고 결의된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선교신학은 세계의 주인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근거로 하나님의 선교 범위를 세계로 확장시킨다(Vicedom, 1980; Anderson, 1988; Hoekendijk, 1992). 나와 세계인의 문제가 공통의 사안이 되어야 하며,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인류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전인적인 인간화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생명령을 누리게 하고, 다양성과 다름의 인정을 통해 깨어진 인류 공동체를 생명 공동체로 전환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2) 정의에 근거한 약자 보호에 관한 율법

구약 성서의 기본 정신은 이집트 종살이에서부터 벗어난 출애굽의 역사적 경험에서 시작된다. 이 정신은 율법서인 모세오경⁵ 전반의 정의에 근거

4 Missio Dei(하나님의 선교) : 1952년 Willingen 세계 선교 대회에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주제 강연을 한 호켄다이크J.C. Hoekendijk에 의해 처음 사용된 단어로, 선교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전체 역사 속에서 진행되며, 역사의 사건을 통해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5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서의 핵심이 되는 율법서로 여호수아까지 모세 6경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 약자 보호정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약 성서의 중심인물인 예수는 구약 성서를 경전으로 삼으며 이러한 정신을 회복시키려는 개혁가였다.

다섯 권의 책 중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갓월드는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 상태가 아니라 떠돌이들의 집합으로서 이집트에서 빌붙어 살다가 노예가 되었고, 어떤 계기를 통해 이들이 힘을 합쳐 탈출을 기도한 것으로 보인다면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 오렌 세월 동안 교회에서 묵과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 율법인 십계명 앞에 붙은 전제, 즉 성서 전반에 걸쳐 강조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출애굽기 20장 1~3절).

이와 같은 압제로부터의 해방은 힘의 논리가 아니었다. 해방된 이스라엘은 다시 힘으로 누군가를 누르는 것이 금지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논리에 의해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사회적 약자는 과부나 고아와 같은 민족에 한정되지 않고, 이스라엘에 몸 붙여 살 수밖에 없는 떠돌이 외국인의 일까지 관심하며 돌보는 데 이르렀다(출애굽기 22장 21~23절, 신명기 24장 17~22절 등). 이것은 예배 공동체를 위한 기록으로 레위기에는 이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강조되는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주인이며, 그 주인은 모든 압제를 거부한 해방자라는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굶게, 그것들을 남겨 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레위기 19장 9~10절).

하나님은 강제로 자신을 믿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미 선택하였지만, 해방 후 비옥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대단히 인상적이다. 신은 인간을 버리지 않고, 인간은 늘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메시지는 정의에 근거한 약자 보호에 관한 율법 정신 구현 또한 인간의 몫임을 드러낸다. 신명기 역시 사회적 약자로서 외국인인을 포함한 점이 특이할 만한 내용이다.

성서 66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오경 전반에서 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의 범위에 나그네와 이주 외국인까지 포함하였다는 사실은 다문화 사회 속에서 반드시 재고할 내용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서의 중대한 일부 맥락이면서 그동안 누락되어온 내용이므로, 다문화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교육 주제가기 때문이다.

3) 선민사상에서 세계시민 사상으로의 전환

선민사상은 이스라엘 민족 고유의 사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선민사상이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유일한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약한 히브리 노예 공동체를 선택하여 해방시키고 공동체를 이루게 한 것을 모델로 하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Imago Dei}⁶⁾” 대로 존귀하게 재창조하였다

는 전체 성서 내용 중에서 지극히 단편적인 내용이며, 이스라엘의 오랜 식민지 역사적 맥락에서 나타난 성서 왜곡의 현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서는 히브리인들의 출애굽 이후 형성된 선민사상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와 온 우주로 확장하여 다룬 세계시민사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⁷하여서 하나님 세계의 표본으로 삼기 위하여, 히브리인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고, 공동체를 이룬 후 이와 같은 역사적 행보에 온 인류가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서의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크게 구약과 신약 성서의 몇몇 부분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구약성서를 보자면, 구약성서에 기록된 히브리인의 역사는 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국을 건설하였지만,⁸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오랜 포로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고통 받았던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이방인과 세계로 확장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특히 모세 오경을 형성한 여러 자료층 중 J문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닌 인류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김이균, 1999: 117).⁹

6 하나님의 창조 설화를 중심으로 성서의 인간관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친히 그의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준 존귀한 자이자, 먼지 또는 흙으로부터 빚어낸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오만함을 경계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7 고린도전서 1장 27~29절.

8 성서는 원역사로 들어가는 신화의 시대 이후 아브라함·이삭·야곱 등의 족장 시대, 가나안 정착 이후 기드온·삼손 등의 민족적 공동체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과 다윗 왕조로 시작되는 (통일/남북) 왕국 시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9 ‘야훼’라는 신명(神名)을 사용하는 자료층으로,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원역사로부터 성서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야훼의 계시의 빛에서 인간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끊임없이 배반하는 인간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의지를 그리고 있으며 신과 인간 간의 격의

구약성서의 여러 책 중 몇 권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개념을 뛰어넘는 주제와 소재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방인과 세계로 확장된 내용의 대표적인 성서는 요나서와 룻기를 볼 수 있다. 죄로 가득한 이방인을 하나님 이 보살피는 것이 싫었던 선지자 요나 이야기는 총 4장에 걸친 아주 짧은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기적인 기독교인의 모습과, 이방인의 즉각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대비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준다. 또한 룻기는 이방인 며느리를 통해 유대인 가정이 살아나고, 심지어 그 가문의 계보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였던 메시아 예수¹⁰가 탄생하는 것으로 그 스토리가 신약까지 이어진다.

신약성서 곳곳에는 당시 기독교 사회가 유대인이냐, 할례받은 사람이냐, 혼혈이냐 하는 것을 두고 질문하고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요한복음 4장에는 유대 사람인 예수가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취급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예수의 행보 자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없었다. 또한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고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겨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느 날 본 환상과 이방인 고넬료와의 접촉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¹¹

성서는 끊임없이 외국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을 중요시 하

있는 친교를 추구하는 정신과 메시지가 모세 오경 곳곳에 나타나 있다.

10 구약을 기록된 히브리어로, ‘기름부은 사람’이라는 뜻. 기름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던 관습으로, 하나님에게 선택된 왕, 즉 구원자를 의미한다. 신약을 기록한 그리스어로 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라는 이름에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11 사도행전 10장 9~22절.

고, 그것을 종교 예식으로까지 해석하고 있다. 성서의 구원은 내가 인간화되기 위하여 너도 인간화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인간화되어야 나도 인간화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억압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서로를 비인간화한다(이준모, 2000).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서로 소외현상을 유발시킴으로써 공동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지배자는 억압함으로써, 피지배자는 억압하도록 용인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서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 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끊어지기에 나는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이사야 1장 10~20절).

2. 다문화 교육의 기독교교육학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민중교육자 문동환(1994)은 기독교교육의 핵심을 “인간해방”이라고 보았다. 그는 교육의 목적을 “인간으로 하여금 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부자유케 하는 모든 사슬에서 해방하는 작업”이며 “그래서 저들로 새 내일을 창조하게 하는 일”이라고 보았다. 민중 신학자이기도 한 그는 교육을 억눌린 인간의 참 해방의 도구로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인간해방”에서 그치지 않고 그에 관해 좀 더 깊숙이 고찰함으로써 “인간해방”의 최종 목적은 “생명”에 있다고 보았다. 생명에 애착하는 이들에 의해 인간해방이 실현되기 때문이다(문동환, 1997). 해방은 제삼자인 민중 신학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恨을 가진, “생명”에 대한 애착에서 나오는 힘을 가진 민중이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역사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교회의 시대적 사명은 “인간해방”에서 더 깊은 차원이자 근원적 개념인 “생명”을 토대로 민중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주도하고 그들을 진정한 “화해”의 바탕에 참된 “해방”을 이끌어내는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민중들로 하여금 악순환의 고리를 직시하고 그것에 과감히 맞서 “단斷”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지구의 모든 이들을 새시대의 주역으로 삼도록 자신을 역사 속으로 내던지는 결단의 촉구이기도 하다.

문동환은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가 인류에게 초래하는 재앙을 목도하고 민중의 개념을 국제적 떠돌이로 확장시켰다. 그 재앙은 떠돌이¹² 이주민의 양산이었다. 떠돌이는 목숨

12 떠돌이: 2006년 한신대 신학과 민중신학회 강연에서 문동환이 처음 사용한 21세기 민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을 걸고 저임금 노예나 인신매매의 희생양으로 자본의 흐름에 따라 세계 도처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총칭이다. 문동환은 국적·민족·인종·문화·종교 등을 불문한 사람들의 초국적 이동 흐름의 배경을 세계화의 신자본주의로 보았다. 떠돌이는 부정적인 자신의 조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개인이 걸머지고, 세계 부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자본가의 꿈을 실현하는 도구적 존재로서 허황된 세계화의 꿈을 따라 오늘날 초국적으로 이동하고 있다(엄한진, 2007). 이들은 타국의 최하위 계층에 속하면서 억압과 착취라는 불의에 처해 있다. 문동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서의 주인공 또한 떠돌이였음을 상기하며, 21세기에 하나님이 이룩하려는 뜻을 “서로 다른 민족이 서로 축복하면서 사는 세상”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곧 21세기의 기독교교육의 목적이자 요청되는 방향성이다.

류장현은 이들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의해 파생된 빈부의 격차에 의해 떠돌이로 밀려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가장 천대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국인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성매매 여성이라고 보았다. 그는 문동환의 ‘떠돌이’의 구약 성서적 근거를 히브리어 단어 “게르(גֵּר)”에서 찾는다. “게르는 빈곤과 전쟁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 타국에 살면서 땅을 소유할 수 없으며 생계가 어려워 타인의 배려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개인이나 부족을 지칭한다(김의원 2008). 게르는 이민자immigrant, 이방인alien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비_非정착민과, 불법 체류인이 배제되어 있고, 한국에서 ‘이방인’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므로 게르의 사회 경제적 성격을 밝히기에 한계가 있다. 반면 “유랑민¹³ 혹은 떠돌이”는 게르의 정치적·종교적 성격을 왜

13 사전적 의미에서 유랑민(a nomadic people, nomads)은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성이다.

곡하지 않으면서 사회경제적 성격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단어라고 보고 “세계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민들을 ‘떠돌이 민중’이라고 부르며 그들에 대한 신학적 증언을 ‘떠돌이 민중 신학’이라고 정의한다.”

2008년 8월에 있었던 한 포럼에서 강순원은 이들을 국적, 국경을 초월하여 기본 삶의 터전이 왜곡되어 인간적인 삶과 거리가 먼 취약한 삶에 노출된 채 민중으로 살아가는 계층이라고 보았다. 특히 강순원(2008)은 떠돌이를 양산하는 세계 구조 가운데서, 제국주의 시대 종결 후 내재된 내적 식민주의(internal colonialism)의 이중적인 양가감정(ambivalence)을 발견해내며 식민지적 근대성을 극복하려는 탈식민지화(postcolonialism)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이와 같은 양가감정은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은 국내 엘리트들에 의해 한 국가 내에서 보이지 않게 사회 구조적으로 재생산된다. 이것이 교육으로 연결되면 편견과 차별에 의한 인종주의를 발생시키고, 제노사이드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근·현대사 가운데 서구 제국주의에 동조하고, 선교적 전략을 통해 세계적으로 교세를 확대하여 식민지에서의 정치·경제적으로 선점하는 데 앞장섰던 기독교인들의 반성을 촉구한다. 그는 탈식민화 관점에서 성서를 바라보는 신학자 수지타라지아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Sugitharajia, 56~59). 이것은 21세기 성서 해석의 새로운 방향성의 제시라는 점에서 앞으로 성서교육에서 중요하게 시도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첫째, 서구 중심의 문화적 해석을 해체하여 제3세계 민중사적 관점으로 재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가난한 사람에 대한 낭만적 서술 혹은 이상화하는 위험성을 벗어나야 한다.

셋째, 희생자를 비난하는 방식이 아닌 희생자를 낳은 사회구조적 인식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해석학적 관점을 수용하여 차이에 대한 다원적 상황에 근거한 접근을 채택하여야 한다.

2) 떠돌이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성격

(1) 훼손된 자기 정체성을 일깨우는 교육

기독교교육은 노예화된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자기 정체성을 확립시키도록 하는 의식화 교육이다. 이것은 한 인간 안에 나타난 개인적·민족적·문화적·종교적·경제·사회적인 총체적인 면에서 인간성을 충분히 발현하고, 주체적으로 삶을 주도하고 있느냐는 문제이다.

문동환이 발견한 21세기의 민중은 생명을 위협당하면서도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 대륙과 바다를 건너 새로운 터전을 찾아 헤매는 떠돌이였다. 그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란 일제를 피해 만주로 떠나 결사항쟁을 도모하던 독립군의 이야기와, 북간도에서 그러한 떠돌이들을 위해 일생을 바친 김약연 목사, 그리고 그를 보며 목사의 꿈을 키워왔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문동환에게 영향을 준 김약연은 1908년 명동교회를 설립하고 주변의 권유로 그의 명동학교에서 기독교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는 1909년 41세의 나이로 전도되어 가족 모두가 개종하였다. 그것은 구한말의 지식인들이 구국救國의 일념과 “민족 교육의 수단으로서, 기독교를 통한 신문화·신사상의 도입”을 목적으로 개종한 것과 다름없었다. 김약연은 기독교를 민족 구원의 종교로 인식하였고, 이주민의 급증에 따른 한인교민 사회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 애국심 고취 등의 현실 문제를 교회 조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운동과 민족운동을 동일하게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민족이 처한 피지배자들의 고난’ 속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기록

들로 가득한 성서를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였다(서광일, 1987).

“한국교회가 지닌 가장 흥미있는 양상의 하나는 애국심이다. 우리의 연안선은 어느 주일 아침 늦게 북쪽 땅에 우리를 내려놓았다. 강 언덕 마을로 이씨는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였다. 대나무 끝에서 조그만 한국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이 깃발들은 기독교인들의 집이나 교회 위에 휘날리고 있었다. 주일이면 그들의 집이나 교회 위에 국기를 단다는 것은 선교사들의 아무런 지시도 없이 한국기독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실천이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날의 성격을 표명하고 그들의 존경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The Missionary Herald, 1898: 2).

국권 상실과 온 국가의 절망적 현실 속에서 교회는 민족교회적 성격을 띠며 1919년 3·1운동을 주도해 나가기도 하였다. 외세 위협과 국가적 총체적 위기는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민족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고, 이 문제는 선교적 과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교회는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보호받는 곳이었다.

“일요일마다 아버지의 땅 아프리카는 신도들이 입은 의상을 통해, 교회 앞에 세워진 뽀아프리카 깃발을 통해, 교회 안에 올려 퍼지는 찬송가와 설교를 통해 찬양을 받았다. 라이트 목사는 매년 사람들을 이끌고 아프리카 여행을 떠났고, 아프리카 기독교인을 초청해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교회의 설교단 위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며, 성서를 아프리카 땅에서 비롯된 진리로 설명했고, 아프리카의 명예를 빛낼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다”(Mansfield, 2008).

성서를 통해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한 바 있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인·아프리카인·아랍인의 복잡한 정체성 문제 속에서, 여전히 억압

받고 차별로부터 해방을 원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읽을 수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가 경험한 교회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신도의 개인의 성장을 독려하고,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본보기로 제시함으로써 신도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동질감과 소속감에서 용기를 주는 공동체이다.

파울로 프레이리(2003)는 자기 정체성과 창조성을 토대로 인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창조성에 부딪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세상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 뒤에는 반드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창조성이 뒤따르도록 되어 있다.

(2) “담장을 옮기는 공동체” 교육

이 이야기는 1차 세계대전 직후 전후 복구 사업에 지원한 퀘이커 교도가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시작된다. 엄격한 가톨릭 전통은 그를 매장할 묘지를 내어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선교사의 시신은 묘지 담장 바깥에 묻히게 되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음날 묘지가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묘지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밤사이 마을 사람들이 담장의 위치를 옮긴 것이었다.

기독교교육의 문제점은 협소한 의미로만 제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교육의 장은 가정과 교회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세계가 된다. 기독교교육의 대상은 영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이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한 인종·문화·이념·종교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개방될 수 있어야만 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

법적인 면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성의 문제는 능동적인 고민과 대화를 통해 극복 가능하다. 교회라는 담장을 넓혀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 기준을 재인식하고 세계 인류의 과제에 적극 동참할 때, 교회의 이기주의적이고 지협적인 해석을 극복하고 성서의 뜻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

3) 다문화 시대의 대화를 통한 기독교교육의 방법 : 대화

힐러리의 신앙은 십대 때 만난 감리교도 교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복음과 사회적 양심 사이에서 고뇌하던 돈 존스Don Jones이었다. 어느 날, 그는 특권층의 백인 십대와 도시 빈민가 젊은이들과 함께 피카소의 〈게르니카〉¹⁴를 본 후 토론을 하였다. 힐러리의 친구들이 한참 전쟁에 관한 피상적인 말을 끝내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 빈민가의 소녀가 담담하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였다.

“바로 지난주에 일어난 일인데, 삼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느 거리에 차를 주차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다가오더니 거기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했대요. 그곳은 자기가 주차하는 곳이라고. 삼촌이 싫다고 하니 그 남자는 총을 꺼내더니 삼촌을 바로 쏘 버렸어요.” 백인 아이들은 경악했다. 특히 힐러리는 큰 충격에 빠졌다.

신의 세상은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Hosseini, 2007). 교육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의 만남과 대화에서 시작된다. 만남과 대화는 기정사실화된 진실에 대한 의심과 지적 호기심으로부터 새

14 ‘게르니카’(피카소) : 스페인 내전 중 1937년 4월 26일 24대의 비행기로 스페인 게르니카 지역 일대를 폭격하던 독일 나치의 만행을 폭로한 그림이다(daum 위키백과).

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 이론과 실천, 사고방식과 삶의 실천 사이의 경험을 통한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한 주체로서 다자간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프레이리는 이러한 대화가 희망·사랑·신뢰·겸손을 바탕으로 역사를 변혁시킨다고 하였다. 대화란 사람들 간에 선입견과 편견을 제거하고 이해를 확장하는 윤리적 사고의 중심이며 본질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는 1984년 “다른 종교인들에 대한 교회의 태도 The Attitude of the Church towards the Followes of Other Religions”라는 문헌과 1991년 “대화와 선포 Dialogue and Proclamation”라는 문헌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종교 간 대화가 실제 일어나는 양식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교육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이상택, 2004).

표 1 종교 간 대화가 일어나는 네 가지 양식

종교 간 대화가 일어나는 네 가지 양식	내용
1. 삶의 대화 (Dialogue of Life)	일상생활을 통해 생사고락을 나누고, 종교 축일 등을 통해 다른 종교를 접해볼 수 있는 양식
2. 행동의 대화 (Dialogue of Action)	사회적 영역에서 협력하여 지역과 세계에 봉사하며 평화적 공존과 인류의 새 문화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만나는 양식
3. 신학적 교환의 대화 (Dialogue of Theological Experience)	전문가들의 학술적 대화의 형식으로, 차이를 통한 정체성과 특이성에 대한 상호 인정과 공존을 위한 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양식
4. 종교적 체험의 대화 (Dialogue of Religious Experience)	좀더 깊은 종교간의 대화 양식으로, 서로의 종교를 체험하고 서로의 고유 전통에 대한 상호 신뢰와 존경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양식

성서는 다문화적 상황에서 쓰여 있고, 서로 다른 신앙적 견해와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쓰인 글을 모은 것이다. 성서의 위대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지혜의 원천이라는 점에 있다. 이에 따른 기독교교육의 과제로는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에 대한 올바른 고찰을 통한 일원주의에 따른 배타성 극복과, 외국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서적 관심에 관한 교육 철학과 내용, 교육과정 및 방법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

III. 다문화적 기독교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조사

1.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 연구 방법

본 조사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기본 인식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이주 외국인 중 정주를 위해 입국하여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이루고 있고, 한국인이 가족 단위로 종교를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교회는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접촉하면서 그들의 의식과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회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기독교교육의 수준과 범위를 설정하기에 유의미하다.

그러나 본 연구 조사의 한계점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조사 샘플이 작고, 특정 지역에 국한된 연구 조사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교회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로 성급하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본 연구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꾸준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연구는 설문 조사와 심층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전북 A시에 소재한 다섯 개 교회를 중심으로 2008년 9월 30일~10월 7일까지 일주일간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각각 20부씩 10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율은 85%이다.

설문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한 내용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교회 구성원의 배제와 편견, 수용 가능성, 그리고 기독교로의 개종과 구원에 대한 인식과 요구의 정도이다. 이것은 기독교교육의 1차적 대상으로서 교회 구성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다문화적 기독교교육의 기초 단계 설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이 네 분야로 나누었다.

면담은 같은 지역 일곱 교회의 목회자 및 신도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중 다섯 교회는 설문 조사 교회와 일치한다. 교회 소개와 목회 철학, 교회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 등은 목회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교회의 방향성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목회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선교의 입장

표 2

설문지 문항	질문의 분류	질문의 세부 내용
1-5번	응답자에 관한 일반 사항	연령대와 신급, 다문화 가정 여부와 다문화 가정을 이웃으로 만나고 있는지 조사
6-10번	교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과 친분의 정도	교회 구성원들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첫인상, 자신의 행동과 생각, 친분정도
11-15번	신앙인의 입장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바라보는 태도	교회 구성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 여부 및 대상 이해
16-22번	같은 교회인으로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바라보는 태도	제3자로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교회에 대한 태도 이해 정도

둘째, 타 종교인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 여부
셋째,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사명에 대한 인식

2. 설문조사의 분석

1) 응답자의 배경

설문조사에 응한 총 응답자 수는 85명이다. 응답자의 성별은 각각 여 52명(61%)·남 33명(39%)이고, 연령대는 10대가 3명(3%)·20~40대가 23명(27%)·50~60대 44명(52%)·78~80대가 15명(18%)으로, 50대 이상의 응답 비율이 70%를 차지한다. 50대 이상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은 교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인식도 파악에 용이하다. 이 연령대의 응답자 대부분은 교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봉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며, 자녀의 결혼과 출산 등을 경험한 연령층으로 다문화 가정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거나, 대체로 자신만의 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응답자별 봉사 직분은 신도를 포함한 집사가 40%를 차지하였고, 장로 17%, 권사 13% 순이었다.

‘4. 다문화 가정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오’ 라고 답변한 응답자 수가 71명(84%)으로,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이 해당 지역에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7명(8%)의 응답자도 있었다. ‘5. 이웃에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3명(62%)이 ‘예’라고 답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웃으로 경험하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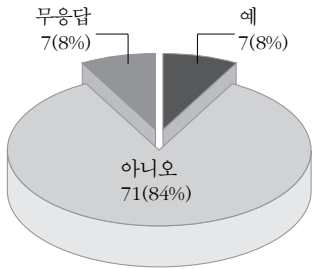


그림 1 4. 다문화가정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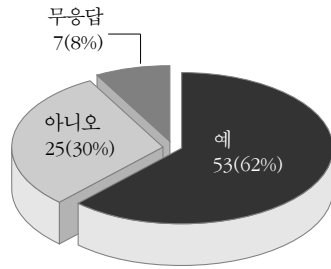


그림 2 5. 이웃에 다문화가정이 있습니까?

2)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기본 인식과 이웃으로서의 관계

교회 구성원의 80%에 차지하는 68명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만난 경험 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만났을 때의 첫인상과 느낌에 대해서는 ‘불쌍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27명으로 전체의 32%의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 의견으로는 ‘신기했다’(16%), ‘놀랐다’(13%) 순이었다. ‘아무 생각 없었다’는 의견 또한 꽤 큰 비중인 28%로 전체 24명의 의견이 있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첫 인상에 대한 느낌에 대하여 ‘① 놀랐다(13%)’고 응답한 이유는 주로 시대의 변화 절감, 타 인종과 함께 사는 것이 현실화 된 점,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를 희생하는 여성에 대한 놀라움, 신부의 고학력 과 낮은 연령, 타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신부의 태도, 타 인종으로서 한국인을 선택했다는 우월감 등이었다. 다음은 실제 응답자의 의견이다.

시대의 변화에/ 말로만 듣던 국제결혼 가정을 직접 보게 돼서/ 타국으로 결혼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가정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결혼을 결심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학력과 연령 차이가 심했다, 신부가 높았다/ 인내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문화가 전혀 다른 색다른 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서/ 타국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 낯선 얼굴에 고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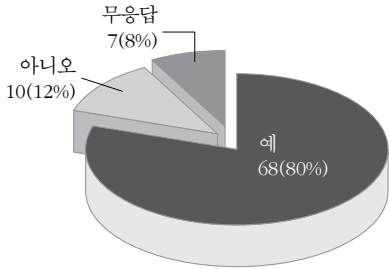


그림 3 | 6. 결혼이주여성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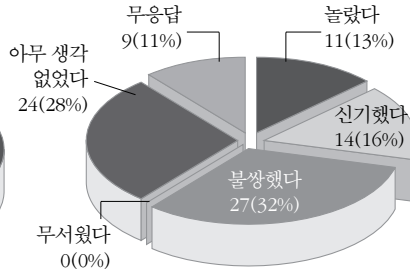


그림 4 | 7. 결혼이주여성의 첫인상

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온 것이 고맙고 놀랍다/ 한국에 와서 너무 적응을 잘했고 살림도 음식도 잘한다

‘② 신기했다(16%)’ 항목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다른 문화 중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다른 외모와 아기가 한국인과 비슷하다는 것, 말로만 듣던 지구촌이라는 세상이 피부에 와닿는다는 것, 외모와 언어 등이 다른데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신기했다’라는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가 그 이유를 적은 것이다.

문화가 다른데 한국에 와서 산다는 게 신기하다/ 외모가 달라서/ 멀리서 왔다고 해서/ 우리말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고, 안고 있는 아기가 한국 아기 같다/ 지구촌 세상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피부로 와닿는 것은 처음이라서/ 현재 우리나라 남성들이 많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와 주는 것이 신기했다/ 얼굴 모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같이 생활하는 것/ 외국에서 온 분이라 생소하고 의외라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사니까 신기했다/ 나와 모습이 다른 사람을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7번 문항 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체크한 3번 항목인 ‘③ 불쌍했다(32%)’

에 대한 의견은 주로 결혼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성사되었다는 점으로, 여성의 나라와 가정의 가난을 국제결혼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대다수이다. 다음은 응답자들이 3번 항목에 관련 의견을 적은 것이다.

팔려온 거 같아서/ 돈 때문에 모든 문화가 다른 나라에 와서 불편을 겪으며 사는 것 같아서/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고 팔려온 기분이 들어서/ 지참금에 의한 국제결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구박에 마음이 아팠다/ 가난한 가정과 나라에서 태어나서 경제 문제 때문에 연령 차이가 많은 남성을 만나게 돼서/ 가족을 두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곳으로 시집은 것이 불쌍하다/ 자기 나라에서 어려워서 타국인과 결혼한다는 점/ 타 문화권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모습이 애처롭다/ 경제적인 문제/ 타국에서의 생활 / 이국 생활의 비애/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 먼 타국에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의 차이점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 때문에 안타깝다/ 부모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한 것 같아서 / 오죽했으면 고향 친척을 뒤로하고 이곳에 왔을까/ 오죽하였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싶었다/ 부모 형제 이별하고 낯선 이국땅에 이주했기 때문에(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이주가 대부분임)/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 너무 외롭고 답답할 것 같아서/ 낯선 이국땅에서 마음고생이 많은 것 같아서

28%를 차지하는 ‘⑤ 아무 생각 없었다’에 대한 의견으로는 국제결혼이 주여성을 구경거리처럼 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있었다. “동물원의 원숭이가 아니니까”라고 의견을 적은 것으로 보아 인종 차별적인 시선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추측된다. 우울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안쓰러워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라는 의견이 있었다.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인사한다, 반갑게 인사한다/ 그냥 지나간다/ 아무 생각 없다/ 어느 나라 여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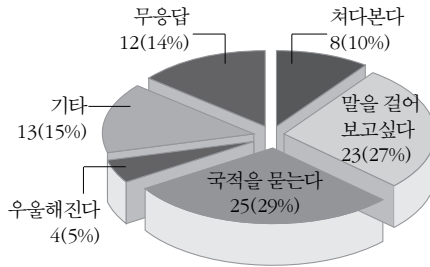


그림 5 7. 결혼이주여성의 첫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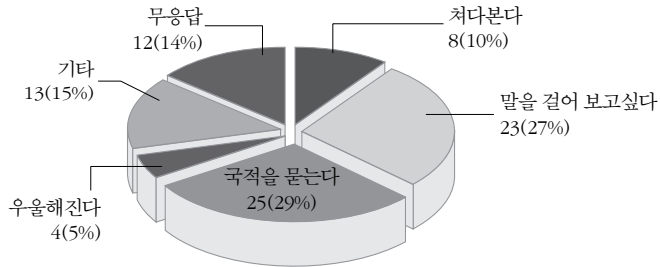


그림 6 8. 결혼이주여성과의 대면시 행동

지 혼자 상상한다/ 인사한다/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건네고 관심을 갖고 싶다/ 웃어준다/ 이 지역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네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 없다/ 일반인과 똑같이 대한다/ 인사 정도/ 손이라도 흔들면서 반가움을 표시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과의 대면 시 취하게 되는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행동’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국적을 묻는다’가 29%(25명), ‘말을 걸어보고 싶다’ 27%(23명), ‘처다본다’ 10%(8명), ‘우울해진다’ 5%(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다’, ‘말을 건네고 관심을 갖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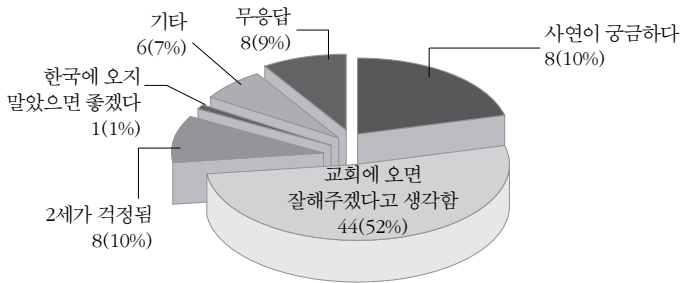


그림 7-9. 결혼이주여성과의 대면 시 드는 생각

‘적응을 돕고 싶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한다’, ‘반가움을 표시한다’는 내용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과의 대면 시 드는 ‘생각’에 대해서는 ‘교회에 오면 잘해주겠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고(52%) ‘사연이 궁금하다’는 의견이 21%를 차지하였다. 또한 태어날 2세가 걱정된다는 의견에 10%를 차지하는 8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인들과 똑같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날 아기가 걱정되는 이유는, ‘놀림을 당할 것 같아서’, ‘교육 문제’,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2명)’, ‘혹시 가정 불화나 이혼 등의 문제가 있을까봐’였다.

응답자 수의 7%를 차지하는 ‘기타’ 의견은 ‘국제결혼 비용에 대해 생각한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냥 신기하다’, ‘평등하게 대해준다’, ‘잘 적응하는지 궁금하다’, ‘다른 한국인들과 똑같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과의 친분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회 구성원의 34%가 ‘인사와 안부’를 나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눈인사 정도를 나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9%, ‘서로 가정과의 왕래가 있다’는 의견이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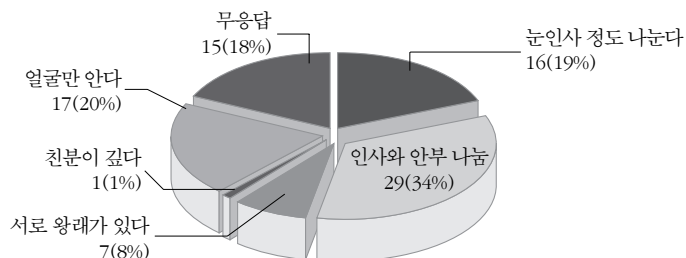


그림 8 | 10. 결혼이주여성과의 친분 정도

였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도와주고 있다’, ‘따뜻한 미소와 눈빛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기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친분이 깊다’는 의견은 1%에 그치고 있고 ‘얼굴만 안다’는 의견은 20%를 차지함으로써, 교회 구성원 중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8%와 다문화 가정 이웃을 경험한 62%의 응답자들이 아직 국제결혼 이주여성과의 관계성을 맺는 것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신앙인의 입장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바라보는 태도

‘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교회로 전도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62%가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전도를 시도한 응답자는 23명으로 전체의 27%에 그쳤다.

‘12. 결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교회로 전도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29%로 가장 많았다. ‘적응을 돕는 공동체로서 소개하고 싶다’와 ‘구원의 길이므로’라는 응답은 각각 8%와 7%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50%가 ‘무응답’을 선택하였다. 이

점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교회 구성원들이 ‘판단 보류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다음 문항인 ‘교회로 전도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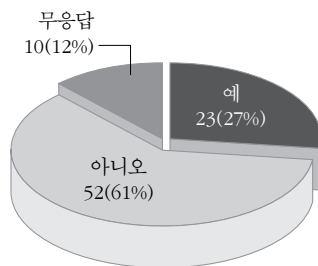


그림 9-11. 전도 시도 여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교회로 전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교회 구성원들의 28%가 ‘말이 안 통해서’라고 응답했으며, 15%가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5%가 ‘타 종교인이므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이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와 종교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고, 때문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언어의 문제는 현재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 가능하므로, 교회의 사명이나 구원 등 종교의 진리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한 현실에서는 전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15%)’는 의견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즉, 타 인종과 자국민을 ‘다른’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인종 간 차이성의 인식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11번과 12번, 13번 문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타 의견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적응부터 한 후에 전도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전도를 통해 교회 공동체에서 한국 적응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싶고, 결혼한 남편에게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싶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언어, 문화가 달라서 시도하기 쉽지 않다/ 특별히 생각해 보지 못했다/ 여성이 사는 지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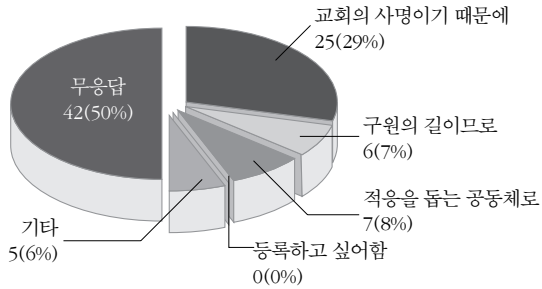


그림 10 12. 교회로 전도하려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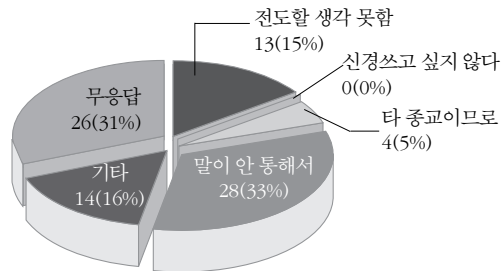


그림 11 13. 교회로 전도하지 않은 이유

교회와 멀어서/ 원래 전도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 나 자신의 신앙심이 부족해서/ 반갑게 인사를 한다/ 무작정 전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평소 전도활동을 해본 적이 드물다

구성원들의 의견 중 ‘평소 전도활동을 해본 적이 드물다’는 의견은 국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전도에 대한 적극성의 정도가 교회의 선교와 전도에 대한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교회 구성원들은 대체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그들을 도울 자세가 준비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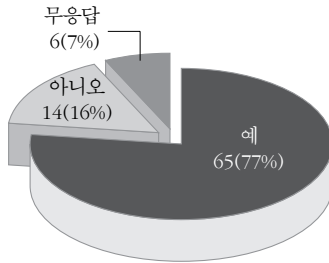


그림 12 14. 교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만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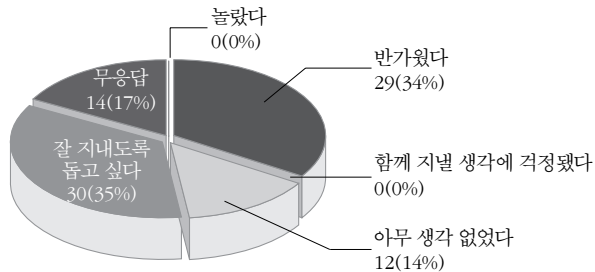


그림 13 15. 교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만났을 때의 생각

어 있었다. ‘교회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77%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교회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만났을 때 든 생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35%가 ‘잘 지내도록 돕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34%가 ‘반가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4%는 ‘아무 생각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기타 의견은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 답변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4) 같은 교회 구성원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바라보는 태도

교회 구성원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여 대체로 만족하였다. 16번 문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교회에 함께 다니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28%와 18%가 각각 ‘자부심을 느낀다’, ‘즐겁고 재밌다’라고 응답하였다. ‘창피하다’, ‘불편하다’는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가 없다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대체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같은 신앙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교회 생활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출석만(36%)’하고 있고, ‘등록만 하고 잘 안 나오고 있음(6%)’에도 불구하고 교회 구성원들이 관대하고 포용력 있게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태도가 ‘대인관계가 좋고(18%), 교회 어른들에게 잘하고 있다(9%)’는 것으로 보아, 현재 교회 구성원 일부와는 어느 정도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교회 구성원 일부에게 바람직하게 보이는 것 같다.

16번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② 자부심을 느낀다(28%)’고 응답한 이유에 대한 개인 의견은, 대체로 ‘영혼 구원’에 대한 교회의 사명 달성, 낯선 이국 땅에서 고생하는 여성을 보살피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뿌듯함, 타 종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부심,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일부에서는 실제로 본 조사연구에 참여한 교회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교가 기독교와 가톨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 속에 ‘타 종교인’이라는 선입견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통해 한국을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한국에서 기독교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인식의

작용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은 16번 문항의 항목 ②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다.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서/ 한 영혼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우리 교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쁘다/ 좋은 일이고 인종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올타리가 되어 줄 수 있어서)/ 종족이 다른 외국인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반갑다/ 지구촌에 한국을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서로 돕고 싶다/ 같은 종교인으로서/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자기 나라에서 종교도 있었을 텐데 교회에 나오게 되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기대로/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 많아질 것이다/ 문화가 다른데 신앙 안에서 잘 적응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한국 교회에 대해 외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합당하고 그들도 한 인간이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 열심히 다니면 더욱 좋겠다

문항 16번의 '③ 즐겁고 재미있다(18%)'를 선택한 응답자의 개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에 응한 교회 구성원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대체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된 점, 한국문화와 다른 문화와의 만남에 대하여 거부감보다는 긍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졌다는 것이 이채롭다/ 구원을 얻게 되니까/ 영혼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접하고 초등부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에 감사해서/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 되었다는 것에/ 어차피 결혼해서 살게 되었으니 우리와 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게 돼서 기쁘다/ 다른 나라의 풍속을 접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문화도 보여주고 그 나라 문화도 듣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하나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노력과 그를 통하여 가정이 민게 될 것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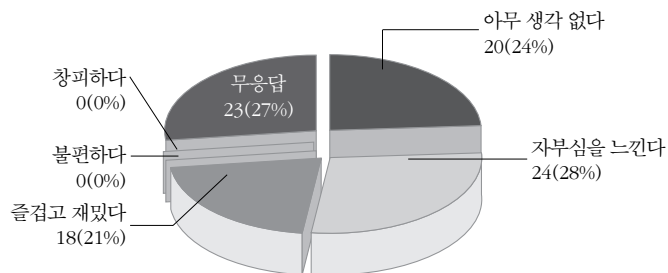


그림 14 16. 결혼이주여성과 교회에 함께 다니는 것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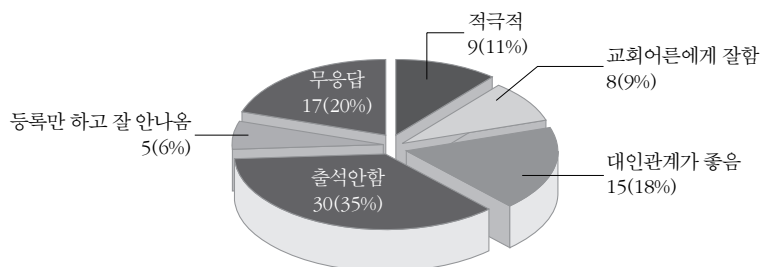


그림 15 17. 결혼이주여성의 교회생활은 어떠한가

17번 문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교회 생활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출석만 한다’는 의견이 36%로 지배적이었으며, ‘등록만 하고 잘 안 나온’다는 의견도 6%가 있었다. 또한 ‘대인관계가 좋다’는 의견은 18%였고, ‘교회 어른에게 잘한다’는 의견이 9%였다. 한편 ‘교회 생활에 적극적’이라는 의견은 11%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웬지 어색해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18번 문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앙심은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는 항목에 46%의 비교적 많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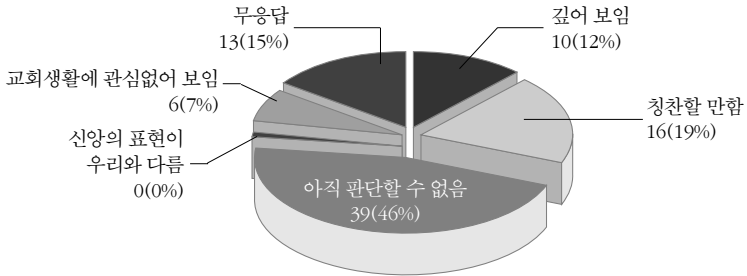


그림 16 | 18. 결혼이주여성의 신앙심은 어때해 보이는가

자들이 답변하였다. 이것은 문항 13번에서 볼 수 있듯이 소통과 표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문항의 항목 중 19%가 ‘칭찬할 만하다’, 12%가 ‘깊어 보임’으로 응답하였는데 이것은 과거 중국 지하 교회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신도가 있는 교회 구성원들의 응답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의견으로는 ‘신앙의 표현이 우리와는 다른 것 같다(1%)’는 의견이 있었다. 그 이유로는 ‘여성이 결혼 전 다른 종교를 믿었고 생활양식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교회 생활에 관심 없어 보임(7%)’에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자기 나라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라서’, ‘남편이나 가족이 원하기에 따른 것 같다’, ‘신앙이 원래 없던 것 같다’, ‘이끌어주는 이가 있다면 적응해서 잘 해낼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 이전 외국에서의 교회 또는 종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9%에 불과하였으며, ‘아니다’라고 답변한 응답자 수는 66%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는 ‘나눌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20.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과거의 교회 생활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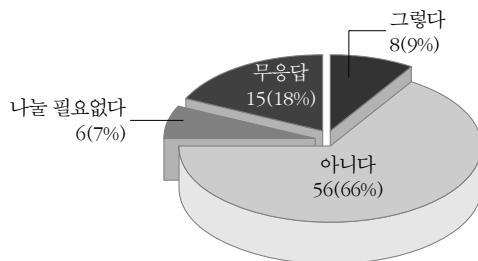


그림 17 19.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이전 교회 또는 종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가 ‘직접 그 나라 그 교회에 가서 경험해 보고 싶다’고 응답함으로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과거 신앙생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또한 11%의 응답자는 ‘재밌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별로 관심 없지만 예의상 열심히 들어준다(15%)’는 응답자의 태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을 엿볼 수가 있다. 응답 항목 중 ‘말해본 적 없다(32%)’와 ‘무응답(22%)’은 응답자 비율 중 55%나 차지함으로써 상당히 큰 비중이지만, ‘관심 없다’는 응답자 수가 0명(0%)인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과거 교회 생활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에 대한 질문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과거 자신의 종교에 대해 말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하여서는, ‘개종한 것이 다행이다(26%)’,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이다(2%)’,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4%)’의 총 32%가 타 종교에 대한 기독교인으로서의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반면 ‘내가 타 종교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14%)’, ‘타 종교를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19%)’는 의견도 전체의 33%를 차지함으로써, 기독교인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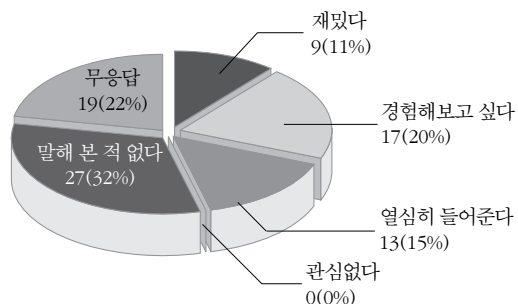


그림 18 20.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이전 교회 생활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타 종교에 대한 호기심과 관용성과 배려심을 고려해 볼 수 있었다.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다행(26%)’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체로 영혼 구원에 대한 의견과 가족 공동체가 같은 종교를 믿게 되어서, 한국생활의 적응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였다. ‘한국에서 생활하면 이쪽 종교에 적응해야 생각이나 행동에서 적응이 쉬울 것이다’는 의견을 통해 응답자가 기독교를 한국의 종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참 구원과 진리를 따르게 되어/ 구원받는 길이므로/ 기독교가 진리이므로 구원 받은 행복감에 감사드리므로/ 가족이 같은 종교를 믿게 되어서/ 영성을 얻기 때문에/ 주님 사랑으로 구원의 확신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면 이쪽 종교에 적응해야 생각이나 행동에서 적응이 쉬울 것 같다.

기타 의견으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과거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 잘 안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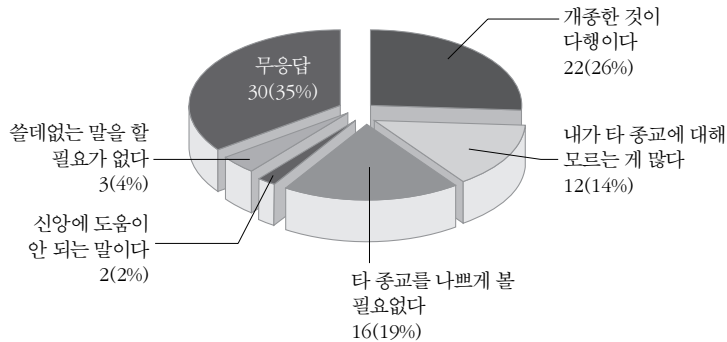


그림 19 21. 결혼이주여성이 과거 자신의 종교에 대해 말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 심층 면담 연구 분석

1) 교회의 지역사회 선교에 대한 입장

면담 대상자들은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와 지역사회 속에서의 조화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들 교회는 이미 지역아동센터(3곳), 노인재가 시설 및 가정 봉사원 파견센터(1곳),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컴퓨터 운영(1곳) 등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 교회도 마을의 교회 부지의 사용 허용, 회관 건립, 그룹홈 시설 등을 통해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지역사회 봉사를 오랫동안 추진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상황은 모두가 다르다.

“교회에 부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처음 시작한 것은 가정 방문 식으로 이루어 졌어요. 처음부터 노인들에게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면 ‘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지?’, ‘그런 일 하는 교회 못 봤는데?’, ‘교회 예산이 많이 들 텐데’ 하는 걱정거리부터 생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심방 가듯이 독거노인 방문해서 반찬 전달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한 2년쯤 지나니까 신도들이 노인들을 위한 일을 하자고 먼저 건의하더군요.”

이 교회는 장로와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여러 기관이 활성화되어 있고, 향후 돌봄센터의 개념을 도입하여 다문화 사회로 변화된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떤 목회자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였다. 선교에 있어 신도들의 호응을 기다리면서 완급을 조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인 것이다.

“이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목회자로서 모든 일을 하기엔 역부족이에요. 신도들도 나름대로 부담이 되고 해서 일단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중단했어요. 곧 다시 재개하겠지만 신도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과 제가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교회의 목회자는 청빙 당시부터 활발한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목회자였다. 이 목회자는 여성의 전화, 청소년 상담 등의 활동 경험을 근거로 현재 한국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가정의 위기로 판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기가족 상담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는데, 가정 폭력에 노출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상담이 늘어남에 따라 이곳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쉼터로써 전환되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쉼터의 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없다. 같은 가정 폭력을 겪었다고 하여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인 여성에 의한 또 다른 차별의 대상으로서 이중고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그의 교회의 이해는 ‘이해와 배품’의 공간이다.

“교회는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컫기도 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 개인이 그가

당한 고난의 값과 흔적으로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도 없고, 감사한 마음이 큰 만큼 베푸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그는 교회가 지역 사회를 돌보는 것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밝힌다.

“교회의 사회봉사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기초적인 삶조차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일일 뿐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한 사람을 보면 누구나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고난 받은 예수를 생각할 때 그의 뒤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일은 어렵지 않잖아요.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일곱 교회 중 두 교회는 1900년대 초에 세워진 곳으로 지역 사회의 신임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 중 한 교회의 역사는 남녀유별과 반상^{班常}의 차별이 존재했던 당시에도 평등하게 기독교의 영향을 끼치기 위한 노력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또한 우금치 전투 이후 동학농민운동의 실패 이후 새로운 희망으로 급부상했던 기독교는 문동환이 경험했던 민족 구원의 종교로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특히 성서의 가르침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져 기독교인 2세대들은 회초리를 맞으며 공부할 정도였다.

“여기 교회는 사실 지역사회를 위해 딱히 무언가 해야겠다는 의무감은 없어요. 하지만 워낙 마을 사람들의 90%이다 보니 마을과 교회의 협조가 긴밀한 편이에요. 한국에 개신교가 전래되었을 당시에 세워진 교회라 오랫동안 면면히 흐르고 있는 신앙의 줄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 후손들이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예전의 성서 공부와 신앙의 열정이 지금의 교회의 자양분이 되어 왔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너무 없어서 미래가 걱정입니다. 이곳이 농촌이다 보니 젊은 사람들도 많이 없고 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디어가 부족해요.”

목회자들의 지역사회 선교에 대한 입장은 하나님의 선교신학에 근접해 있었다. 그들은 무조건적인 개종, 전도를 위한 선교에 대해 반대적 입장이었다. 면담을 통해 목회자들은 상당히 자신의 신학적 소신과 입장을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에 맞도록 적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따라서 신도들의 의식적 변화에 따른 교회의 상황은 시간과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교육의 내용과 교수 방법 등의 제공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타 종교인인 국제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 여부

본 연구자가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두 번째 내용은 타 종교인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우선 면담자 중 다섯 명은 교회를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다문화 가정을 접하고 있었다. 첫 번째 교회는 베트남인 국제결혼 이주여성 2명과, 가출한 필리핀 여성을 어머니로 둔 다문화 가정의 아이 2명이 있었다. 베트남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세례를 요청하였는데, 당회에서는 그것이 정말로 스스로 결단한 것인지 재차 확인한 후 세례를 주었다. 이 중 1명은 가출의 경험이 있었으나 현재는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가끔 함께 일하고 있는 공장의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기도 한다. 어린이부에 출석 중인 2명의 아이의 가족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관심과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한계를 느낀다고 한다. 이 교회 목회자는 이들에 관해 이렇게 말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가난한 현지 친정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그 돈을 송금하려고 해요. 신문이나 방송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로가 인신매매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도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한국에서는 인권과 사회 부적응 문제,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참 불쌍하게 여겨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알게 되면 성탄절이나 명절에 좀 관심을 가지고 찾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봐 주기도 해요. 하지만 어린이들만 교회에 나오는 경우엔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막막해요.”

그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교회에 등록하는 것보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고 싶다고 하였다. 그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그들을 열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희생한 약자에 대한 연민에서 출발한다.

두 번째 교회에는 몇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다. 이들 가정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원래 기독교인이거나 가톨릭에서부터 개종한 여성들이다. 이 교회의 목회자는 이들과의 첫 대면을 떠올리며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피하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말하였다. 또한 도움을 주고 싶지만 아직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목사는 교인의 집에 심방을 해야 하잖아요. 외국인 며느리가 있는 가정은 왜 그리도 긴장이 되는지, 가기 전부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심방 때 막상 만나면 제가 외국어도 못하고…… 지금도 겨우 의사소통이나 가능하지 심도 깊은 상담은 꿈도 못 꾸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종교 이야기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그가 접한 다문화 가정의 여성은 가정 내에서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출에 대한 염려가 그 원인이다.

또한 생활비를 친정으로 송금하는 문제와 국제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속단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기엔 자신이 아는 바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여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세 번째 교회의 목회자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해 이주 여성과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들을 만나기 위해 여성의 전화에서 상담을 하거나 한글교실 등을 열기도 하였다. 또한 한족 대학생을 돌보다가 수양딸로 삼아 목회자 자신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 목회자는 교회와 지역사회 안에서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디아코니아의 차원에서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네 번째 교회에서는 목회자보다는 신도들의 의견이 도움이 되었다. 그곳에는 중국인 3명의 신도가 있다. 2명은 대학원 학생으로 한 명은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다가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 상태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다른 1명은 조선족으로 중국 지하 교회 교인이었으며 한국으로 온 이후에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왔다. 교회 집사인 시어머니의 경우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집안을 소개하였다. 며느리는 종교 행위가 금지된 중국에서부터 신앙을 갖게 된 만큼 상당히 기독교적인 소양을 갖추었다. 하지만 설문 조사에 대해서는 약간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며 자리를 떴다.

다른 신도는 한국에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처지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외국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느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의 느낌이란 비슷할 것 같은데, 왜 공항에서요, 잘 몰라서 뭘 물어볼 때 백인을 만나면 괜히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위축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유쾌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국제결혼 이주여성도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교회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교회이다. 이곳 교회 목회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자신과 만난 여성들을 생각해 보면 결혼생활 부적응이 우울증 등으로 나타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보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이국 땅에 오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그들도 결혼 생활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게다가 문화도 다르고, 의사소통도 어렵고, 시댁도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잖아요. 국제결혼 주선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쓴다면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라고까지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대체로 교회의 목회자와 신도들은 사회적 약자인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편에서 생각해 보려고 애쓰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생각하고 있다. 이 목회자는 쉼터에서 예기치 못한 개종 경험을 소개한다.

“한 캄보디아인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도 가정불화가 심각해서 이혼을 하고 곧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쉼터에 온 지 꽤 지났는데 어느 날 저더러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참 재밌게도 그 사람은 이미 시댁의 강요로 자신의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이에요. 처음 쉼터에 와서 얘기할 땐 자기가 자기 종교를 버려서 그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몸이 자주 아프고 나쁜 일이 생긴다고 했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꼭 교회를 찾아서 나가겠다고 스스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교회나 시택에서 자기의 신앙을 강요하는 것보다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자연스럽게 개종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교회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전도의 대상으로 본다거나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다만 교회와 컴퓨터를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기독교의 정신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다. 컴퓨터 이용자들에게는 현금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대신, 부식이나 옷 등으로 직접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도들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컴퓨터를 방문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두고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마음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변인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섯 번째 교회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신도들도 있다.

“그게 일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서는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절대 주민등록증을 안 준대요. 왜냐하면 그걸 받으면 도망간대요. 그런 걸 자기들끼리 만나면 방법을 서로 가르쳐 주고 해서 외출도 못하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집에 있는 돈을 친정으로 보낸다고 싫다는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는데.”

그러나 이들에 대한 편견은 사회를 통해 접하게 된 차별의 사례들이었고, 타 종교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다문화적 기독교교육에 대한 사명 인식

면담자들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를 받아들였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중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의 현실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교회는 서서히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의 범위를 다문화 가정까지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확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돌봄 센터, 교회와 지역사회의 디아코니아적 접근 방식,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쉼터의 형태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접근 방식은 필요에 대한 양적 지원 중심의 복지적 지원 형태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에게 있어 기독교교육은 여전히 주말을 중심으로 교회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예배와 성서학습, 특별 교육활동에 머물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은 사회 복지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하고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 복지는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지만, 교육에 의한 의식적 전환없이 교회의 사회복지는 매년 되풀이되는 성탄절 자선 행사와 같은 것으로 그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때 복지와 교육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4.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설문과 면담 조사의 종합적 분석

설문 조사와 면담 결과는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희망적이었다. 교회 구성원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과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교육적 방향 제시와 대안 모색 등을 통해 국제결혼 이

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이 지역 사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보인다.

설문 문항 분석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을 차지한 50대 이상의 교회 구성원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연민과 배려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교회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현실적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성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것에 대해 대체로 반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면담을 통해 기독교인과 결혼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남자 쪽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선택하기를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단순하게 약자에 대한 불쌍함, 연민으로 교회 구성원들을 방치하는 것은 평화적 공존이라는 미래상을 그리기에는 불안감이 있다. 정부 보조 문제로 인해 한국인 저소득층과 경쟁 관계가 되거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단체 행동을 한다거나, 일자리 문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의 평화로움은 교회 구성원들에게는 다문화 가정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그다지 얹혀 있지 않아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이것이 올바른 관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과 다문화 가정, 국제결혼 이주여성 모두의 의식적 변혁을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성과 내용, 과정과 방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1) 기독교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필자는 앞서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신학과 기독교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살펴본 바 있다. 거기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설화를 통하여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의에 근거한 약자를 보호하는

율법 정신의 기록이 담겨 있으며, 민족주의를 뛰어넘은 세계시민의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설문 조사와 면담에 응한 교회 구성원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교적 개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종에 대하여는 환영하였다. 교회 구성원들의 교회 이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약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공간이었고, 기독교 신앙을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선한 것에서 출발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교회를 선택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문화적 접변 현상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받아들이는 개종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곧 종교에 대한 자부심으로 연결된다. 자신의 종교에 대한 확신을 갖는 종교인이라면 어디 서든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전하고 싶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하며,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도 도움을 얻기를 권하게 된다. 이것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종교인의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설문 조사와 면담 결과는, 교회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자긍심은 가지고 있지만, 개종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친분을 통해 자발적인 개종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타 종교에 대한 개종 및 적대시, 배제 등의 물의를 빚고 있는 일부 근본주의적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발견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3) 외국인과의 접촉을 통한 우월감과 개종 강요의 문제성 인식

그런데 기독교인의 우월성의 문제는 여전히 간과될 수 없는 문제이다. 설문 조사 대상자들 또한 기독교와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를 일체화시키고 있었다. 국제결혼을 선택한 현실적 이유를 가난 등의 경제적인 문제라고 꼽는 이면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선택한 것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그중 교회에 나오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접한 교회 구성원들은 그들이 기독교를 선택하여 개종하였다고까지 판단하게 된 것이다.

한편 몇몇 응답자들은 기독교의 우월감과 개종 강요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관적인 의견을 기재하기도 하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이중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여성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동화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것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본고 첫머리에서 다문화적 기독교교육의 성격을 언급하면서, 다문화 시대의 기독교교육은 삶의 터전으로부터 소외되어 사회적 약자가 된 떠돌이의 훼손된 정체성을 일깨우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회의 담장을 더욱 넓혀 지역 사회 및 전 세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와 관용을 품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본 바 있다. 따라서 우월감과 개종의 강요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서 벗어난 태도이므로 이러한 태도에 대한 교회 구성원의 인식을 점검하고, 이것을 어떻게 교육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작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4) 타 종교인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

응답자들은 대체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였다. 그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 환경이 보다 나은 한국으로 시집을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가난에 의해 타국 생활을 하고 있는 떠돌이 약자로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 집안의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이미 개종을 강요받고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나, 교회 구성원들은 아직 종교와 문화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문화에 무조건적으로 동화되도록 강제되며, 자신의 정체성과 정신적 가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종교의 문제 또한 당연히 논의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연구 조사 내용 중 한 목회자와의 면담은 교회에서 흔히 시행되는 심방이라는 방법이 다문화 가정 내 상황을 파악하기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심방은 목회자 외 1인 이상이 동참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별 개별 상담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교회 구성원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교회가 가정 내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 가족 간 의사소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5) 기독교 사회교육적 관점에서의 교회와 지역사회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

조사에 응한 교회에서는 대체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교회 구성원을 위한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시

설을 분리·시행하는 데서 오는 차이인 것 같다. 이것은 행정적으로는 필요한 조치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담으로 교회 구성원과 지역 구성원을 나눔으로써 예산·인력·공간 및 감정적인 면 등 여러 면에서 소모적인 결과를 낳는다.

기독교교육을 사회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등록 교인만 교회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안에서 긴밀한 협력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 다문화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실천적 과제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전제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많은 도구 중 하나일 뿐이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창조물의 깨어진 자기 형상과 관계 회복을 말하며, 그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평등한 상태로 자신의 생명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본 연구자는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하여 아직은 호의적이며 판단 보류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교회 구성원들에게서 발견한 것은 성서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교육을 통한 인식의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종교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분명하고, 때에 따라 자연스러운 판단에 의해 개종하는 것을 반기고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우월감과

개종 강요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면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성서 속에서도 충분히 자료를 발굴해낼 수 있다.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필자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의 기독교교육의 과제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발굴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성서 정신의 회복과, 기독교교육의 역사와 정체성의 재확립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 다문화 시대는 자신의 모습과 역량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에게 기여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타 종교나 문화 간의 관계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독교 정신의 근원과 뿌리를 찾고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되찾는 것이 선행 과제가 될 것이다(Palmer, 1991: 54). 특히 종교적 배경에서 출발하는 기독교교육인 만큼 영성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개인적이고, 내면 지향적인 신앙만을 영성의 범위로 한정하였던 것을, 신앙과 사회적 영역, 학문 연구의 영역까지도 영성의 범위로 포함하여 개인적인 신앙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이루고, 그 과정과 결과를 끊임없이 이론과 실천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양성을 기독교교육의 과제로 삼아야겠다.

기독교교육의 두 번째 과제는 새롭게 부각되는 성서적 가치의 교육화 작업이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20세기 이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21세기에 발견되고 교육자료로서 요청되는 성서적 내용을 커리큘럼으로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 시대 속에서의 성서의 재발견은 무엇보다도 현대 사회 안에서 성서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교회 현장에서 활용면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기독교교육은 사회적 약자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성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재창조¹⁵의 역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자존감과 자기 정체성이 훼손된 떠돌이에게 희망을 발견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그 희망을 믿도록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Faith”이다. 교회 구성원의 믿음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한 지지대가 될 수 있다.

넷째, 기독교교육 전문가에 대한 평화·인권교육은 다문화적 기독교교육을 위한 선결 과제이다. 주로 교회 현장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는 기독교교육 전문가들은 성서 속에 자주 나타나는 평화와 인권 개념을 기독교적 용어를 사용하여 가르치게 된다. 그것은 매우 추상적이거나, 너무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거나, 아예 묵과되기도 한다. 기독교교육 전문가에 대한 교육 없이는 성서 안에 숨겨져 있는 평화와 인권에 관한 풍부한 교육 내용이 사장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교육 전문가의 태도 속에 평화·인권적 감수성이 결여되는 성향은 자칫 타 종교 및 타문화 등에 대한 적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섯째, 기독교교육 안에 숨겨져 있는 비언어적 커리큘럼을 찾아내어 교육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실 교회 현장에서 가르쳐지는 성서의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총 66권의 방대한 성서의 분량 중 교육 내용으로 활용되는 성서 구절은 성서 전체의 흐름과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선택되어 왔다. 여기에는 성서의 원래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잘못 해석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회 구성원의 일상적 대화와 경험,

15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세상창조 이후, 죄로 인한 타락으로부터 회개한 모든 창조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새롭게 만드신다는 의미. 모세 오경의 주된 테마는 ‘창조→타락→회개→구원’으로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볼 수 있다.

관심 등을 중심으로 그것이 성서적인 것인가를 볼 수 있다면 그 과정 자체가 좋은 교육 내용이 될 것이다.

끝으로, 다문화적 기독교교육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전문가 육성 교육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더 이상 교회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 바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회와 지역 사회, 세계를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다자간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러한 기독교교육을 통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배우고 나누는 가운데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기독교교육은 자신의 일그러진 자아상(하나님의 형상, Imago Dei)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의식화 교육이어야 한다. 특히 협의의 기독교교육의 의미에서 벗어나 대의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특히 관용과 배려의 정신에 근거한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한 능력을 갖추는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의 선한 역량을 신뢰하고 사회 구조의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의 원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대체한다. 신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연주하는 것이다”(스타인벡, 2008).

다문화 사회 역시 신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세계야말로 신의 창조적 작품 자체이다.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누군가에 의해 배제되고 도태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진리에 의한 이치로

순응해야 할 현실이 아니라, 인간의 오만함의 결과로 문명에 의해 자행되는 일이라는 사실 앞에서 용기를 내야 한다. 또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믿음)을 통해 새로운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성에 기초한 기독교교육은 떠돌이 민중을 역사적 주체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동성을 만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자윈드, 노만(1987). **히브리성서 1, 2**. 김상기(역). 한국신학연구소.
- 강순원(2008). 영국 융합교육 정책에 근거한 한국 다문화교육의 과제. **국제이해교육연구**. 제3권 1호.
- 강순원(2008).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담론으로서 다문화 사회의 인권교육.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한국교육사회학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김경재 외(2005). **한국 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 한신대학교 학술원 한국신학연구소.
- 김경재(2002). **이름없는 하나님**. (주)도서출판 삼인.
- 김이곤(1999). **구약성서의 신앙과 신학**. 한신대학교출판부.
- 김해성(2005). 구약성서의 ‘외국인 이주자’ 개념과 한국 ‘이주자 선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 류장현(2008). 다문화 사회의 민중신학적 고찰. 한신대학교학술원 다문화교육포럼.
- 맨스필드, 스티븐(2008). **오바마,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 오바마의 신앙은 미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조윤정(옮김). 청림출판.
- 문동환(1994). **인간해방과 기독교교육**. 한신대학교출판부.
- (1997). **생명공동체와 기화교육**. 한국신학연구소.
- 박근원(1986). **오늘의 선교론**. 전망사.

- 뱅크스, 제임스(2008). **다문화교육 입문**. 모경환 외(옮김). 아카데미 프레스.
- 베스터만, 클라우스(2005). **구약신학입문**. 박문재(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비체돔, 게오르그(1980). **하나님의 선교**. 박근원(역). 대한기독교출판사.
- 서평일(1987). 복간도 기독교민족운동가 정재면(1882-1962). **한국 기독교사 연구** 15·16. 한국기독교사 연구회.
- 설동훈(2000a). 외국인노동자 인권 및 연대를 위한 시민단체 조사연구. **2000 외국
인 노동자 단체조사보고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 (2000b).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스타인벡, 존(2008). **달콤한 목요일**. 박영원(옮김). (주)문학동네.
- 앤더슨, 제럴드(1988). **선교신학서설**. 박근원(역). 대한기독교서회.
-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7). **다문화 사회의 이해**. 도서출판 동녘.
- 윤병상(1999). **종교간의 대화**. 연세대학교출판부.
- 은준관(1999). **교육신학**. 대한기독교서회.
- 이원규(1998). 한국교회의 종교적 배타성 문제. **기독교사상**. 11월호.
- 이준모(2000). **생태적 인간**. 다산글방.
- 정웅섭(2001). **현대 교육목회의 전개**. 한국신학연구소.
- 통계청(2005). **한국통계연감**.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자료.
- 호세니, 할라드(2007). **연을 훔치는 아이**. 이미선(옮김). 열림원.
- 호켄다이크, 요한스(1992). **흩어지는 교회**. 이계준(역). 대한기독교서회.
- Palmer, Martin(1991). *What Should We Teach? Christians and Education in a Pluralist World*. WCC Publications, Geneva.

자료

- 국민일보. 외국인 노동자 관련 시민단체의 기독교 교단별 분포. 최정욱 기자. 2000년 2월 23일자.
- 표준새번역 성서. 대한성서공회.
- 한겨레신문. “대화문화아카데미와 종교 간 대화 40년” 기념 세미나 발표 기사 중 최준식, ‘한국에서 종교간 대화를 한다는 것’에 관한 내용. 조연현 기자. 2005년 10월 25일자.

Consideration of Christian Education's Task in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the Church Member's Perception Survey of Married Migrant Women

Jung, Hwan-Hee

(Th. M., Hanshin University)

For a long time, the Holy Bible has approved the diversity which gives the wisdom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The confess of all christians towards the Creator should be represented as the respect towards the diversity based on God's creation. The oppression of the diversity is the hostile action against the God and is the expression of human's Titanism which the Holy Bible constantly gives warning.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caused by human's Titanism is the injustice. In order to save people who are returning from this road, the God is giving us the words through the Holy Bible today.

In this study, the surve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find out the views of the Korean church community on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The findings are below:

(1) they have healthy christian identity; (2) there are some possibilities that the conversion could occur naturally by the cultural assimilation; (3) they have critical minds about their discriminative

attitudes towards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and the enforcement of the conversion; (4) they perceived the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as the underprivileged in society rather than other religious people. Through these findings, it was able to recognize the plausibility that Korean Christians can pursue the positive future through education.

Key words: The Holy Bible, diversity, self-identity, married migrant women